

청년 올린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정치권 “피해 구제·제도보완 시급”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문제 불거져
정치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나경원 “청년 보호장치 제공해야
제도개선 통한 후속 지원방안 필요”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 되면서 수백억원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청년들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제2의 전세사기’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서울 전역 15개 단지, 총 3166 가구이며 피해 추정액은 수백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의 ‘코브’ 단지는 총 128 가구 중 50여 가구가 가압류 상태에 처해 있고,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서울시는 대책을 내놓고 긴급하게 퇴거를 바라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세입자들에게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들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실

뒤 가장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하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 안심 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환 시점에 대한 일정은 없고,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실상 사각지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명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은 행정적 관리·감독의 명백한 실패”라며 비판했다. 이어 “제도적 한계를 핑

계로 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 A씨는 “서울시가 선·후순위 구분 없이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추진, 자치구의 신속한 매각 진행,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은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킨 자신의 실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SKY 중도탈락 역대최대… 의대 증원 영향

서·연·고 중도탈락 학생 수 2481명
의학계열 진학 위한 ‘반수’ 현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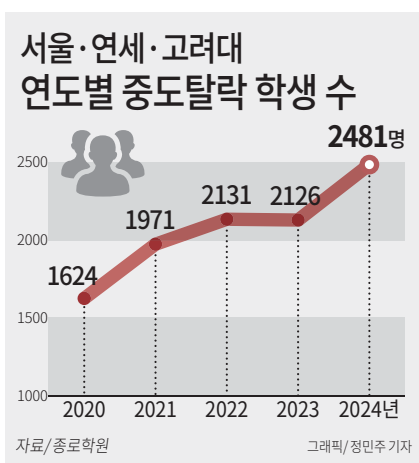
국내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에서 지난해 중도탈락 학생 수가 2481명으로 집계돼, 2007년 대학알리미 공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인문·자연계열을 가리지 않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29일 대학알리미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연고 중도탈락자는 2024학년도 기준 총 2481명으로 전년(2126명)보다 355명(16.7%)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첫 공시 당시 889명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수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485명(인문 103명, 자연 369명) ▲연세대 942명(인문 414명, 자연 487명) ▲고려대 1054명(인문 400명, 자연 638명)이 중도탈락했다. 이 중 자연계열 탈락자가 149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문계열은 917명, 예체능은 70명이었다.

전년 대비 인문계열 탈락자는 154명(20.2%) 증가했다. 특히 고려대 인문 탈락자는 114명(39.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자연계열 탈락자는 173명(13.1%) 증가했으며, 서울대 자연계열 탈락자가



53명(16.8%) 늘었다.

학과별로는 상위권 인기 학과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도 경영·경제·국제학부 등 상위권 학과 탈락자가 대거 발생해 이과생 문과 침공 및 의학계열 재도전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서연고 중도탈락자 급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취업난 장기화 속에서 의대·의학계열 진학을 목표로 한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 현상이 확산되면서, 서연고 학생들이 대거 의대 재입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의대 정원은 일부 축소됐지만, 의학계열 선호가 지속되는 한 이같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현진 기자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 6차로로 확대

출퇴근길 정체 일부 해소 기대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됨에 따라 일산대교의 출퇴근길 정체가 1일부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와 함께 추진한 하이패스 차로 확충공사와 시험 운행이 완료됨에 따라 9월 1일 0시부터 확대 차로를 운영한다.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8만 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 중 하나다.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

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당초 일산대교 요금소는 총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 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

강성섭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이패스 확충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다자녀 부모·청소년도 ‘기동카’ 할인받는다

오는 14일부터 할인·이용 혜택 늘어
할인 확대·한강버스 신규 권종 출시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 ‘기후동행카드’ 이용 편의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부터 받아온 큰 호응에 힘입어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이용 활성화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 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출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사전에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화된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인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이용 요금은 약 4만~5만원 수준으로, 최대 할인폭이 약 1만 7000원까지 확대된다.

이용 요금은 30일 일반권 (대중교통 전용) 기준으로 ▲청소년 할인 5만 5000원 ▲다자녀 할인 5만 5000원(2자녀)·4만 5000원(3자녀) ▲저소득 할인 4만 5000원이다.

특히 청소년 할인은 서울시 ‘규제철폐 91호’ 정책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그간의 꾸준한 요청을 반영했다. 이번 할인 혜택 확대에 친환경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청소년 할인은 그동안 일반 성인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만 13~18세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별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받으면 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혜택과 동일하게 1인 1카드 원칙이 적용된다.

수도권 시민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는 9월 18일 개통 예정인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신규 교통수단이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동수단 다양화, 관광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으로 출시되며,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푸틴, 中 텐진 도착…3일 김정은과 나란히 열병식 참석

/사진 뉴시스

▲美, 종전 안 되니 유럽 땀?…“백악관, ‘고의 방해’라고 생각”

▲EU 장관들도 미국의 팔(PA) 관리 비자 거부 만장일치로 철회 요구

▲블레어 전 英 총리, 트럼프에 “가자 주민들, 제 2 두바이 꿈꿔” 조언

▲트럼프 행정부, VOA 등 532명 감축 발표…6월 600명 해고 이은 조치

▲엘리자베스 여왕 “아는 악마와 함께 하는 것이 낫다”…브렉시트 반대